

신사복 상의 설계를 위한 체형의 호칭 분류와 사이즈 스펙 -36세에서 43세 우리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김 구 자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Designation of Bodytypes and Size Specifications for Designing of the Ready-made Jacket

-36 years to 43 on the Korean adult males-

Kim Ku J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In ha University
(1999. 8. 2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size specifications of Korean adult male for the men's ready-made garments, especially jacket and dress shirts. By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the real anthropometric measurement. Sample size was 263 subjects as the sample and their age range was from 36 to 43 years old. 66 variables from the direct anthropometric data were applied to analyze. ANOVA in SPSSWIN 8.0 package was applied to the data and the expected frequency distribution of 10,000 men was calculated by the extraction of density func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lassify size specifications by the control dimensions. The drop values of 9, 12 and 6 have the high coverage rate of 28.52%, 23.44% and 17.97% respectively. Obese body type ; H type, HD type and HE type, are composed of the majority of 55.47%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drop values, size specifications and distribution of control dimensions are predicted. About 69.82% of the expected frequency distribution were covered by 19 size specifications.

Key word : control dimension, reference dimension, drop value, density function, expected frequency;
기본부위, 참고부위, 드롭치, 밀도함수, 기대빈도,

I. 서 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 기성복 생산체제하에서의 의복의 맞춤새의 정도는 유행의 경향에 따라 옷의 여유분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한 인체계측 자료와

이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적 분류에 근거하여야 한다. 신사복의 상의 설계를 위한 사이즈 스펙을 분류함으로써 우리 나라 성인남성의 가장 출현율이 높은 사이즈 분포와, 또는 큰 체형이나 작은 체형으로 별도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이즈 분포의 실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사이즈 스펙을 선정하여 생산함으로써 생기는 재고의 문제는 의류업체의 부

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국제경쟁력에서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사복 상의 설계를 위하여 인체계측자료에 의한 사이즈 스펙의 분류와 호칭 분류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35세와 43세 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연령집단에 대한 드레스 셔츠와 신사복 상의에 대한 사이즈 스펙을 분류하고, 이 분류에 대해 호칭을 명명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측정 방법 및 내용

연구 데이터는 층화표집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1290명의 인체계측자료¹⁾에서 36세에서 43세 사이의

〈표 1〉 피측정자의 연령별 도수분포

연령	빈도	백분율(%)	연령	빈도	백분율(%)
36	36	13.69	40	45	17.11
37	25	9.51	41	27	10.27
38	30	11.41	42	27	10.27
39	35	13.31	43	38	14.45
계			263		
			100.00		

263명을 선정하였고 이는 1290명중의 20.39%를 차지하고 있다. 1290명을 19~27세, 28세~35세, 36세~43세, 44세이상의 4연령집단으로 나누어 F-test를 한 결과, 체형의 변화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7개의 항목을 제외한, 59 항목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어, 연령집단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피측정자의 연령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측정항목인 66항목이 분석에 이용되었고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2. 분석방법

남성복 상의의 대표적 정장의 하나인 드레스 셔츠와 신사복 상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드레스 셔츠의 기본부위는 목둘레와 화장으로 되어 있고 신사복 상의의 기본부위는 윗가슴둘레, 허리둘레와 신장으로 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드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체형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료에서 사이즈 스펙을 분류하기 위하여 분포의 범위를 설정하고, 윗가슴둘레와 허리둘레와의 차이인 드롭과 조합하여 출현율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연령집단에서는 신장의 성장은 완료되어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윗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연령의 영향을 받아,

〈표 2〉 직접측정항목

번호	직접측정항목	번호	직접측정항목	번호	직접측정항목	번호	직접측정항목
1.	키	18.	어깨점사이너비	35.	W.L길이-배둘레선(앞)	52.	손목둘레
2.	앞허리높이	19.	진동두께	36.	엉덩이둘레	53.	밑위앞뒤길이
3.	배꼽높이	20.	윗가슴두께	37.	둔부길이	54.	몸통세로둘레
4.	장골극높이	21.	가슴두께	38.	뒤편	55.	넓적다리둘레
5.	손끝높이	22.	허리두께	39.	어깨끝점사이길이	56.	무릎둘레
6.	무릎높이	23.	배두께	40.	어깨길이	57.	장단지둘레
7.	바깥복사점높이	24.	엉덩이두께	41.	진동길이	58.	발목둘레
8.	목뒤편높이	25.	발길이	42.	앞진동길이	59.	옆목점-B.P-W.L길이
9.	어깨높이	26.	발너비	43.	등길이	60.	옆목점-W.L길이
10.	진동높이	27.	머리둘레	44.	총길이	61.	머리두께
11.	뒤편허리높이	28.	목둘레	45.	바지길이	62.	머리너비
12.	살높이	29.	목둘레	46.	팔꿈치길이	63.	어깨각도
13.	머리높이	30.	앞뎀	47.	소매길이	64.	등피하지방두께
14.	윗가슴너비	31.	윗가슴둘레	48.	안소매길이	65.	상완피하지방두께
15.	가슴너비	32.	가슴둘레	49.	진동둘레	66.	몸무게
16.	허리너비	33.	허리둘레	50.	위팔둘레		
17.	엉덩이너비	34.	배둘레	51.	아래팔둘레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가장 큰 집단이다. 그러므로 피측정자를 10,000명으로 확대 가정하여 신장을 제외한 윗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2항목에 따른 사이즈 분포를 추정하였다. 분포의 범위와 치수간격을 정한후 밀도함수를 구하여 그 분산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드롭의 개념을 도입하여 체형을 분류하고 이를 분류된 치수에 호칭을 명명하여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WIN 8.0 통계 패키지로 분석되었다.

III. 분석 결과 및 고찰

1) 드레스 셔츠에 대한 고찰

드레스 셔츠의 기본 부위인 목둘레의 간격은 1cm, 화장의 간격은 4cm로 하였다. 본 자료에서 목둘레의 범위는 31cm에서 44cm이고, 화장의 범위는 70cm에서 82cm이다. 목둘레와 화장에 따른 윗가슴둘레의 값과 그 분포를 분석하였다. 263명중 목둘레가 30cm 이하로 너무 적거나 44cm 이상의 너무 큰 값을 가진 7명의 피측정자 (outlier)를 제외한 256명에 대한 분포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둘레와 화장에 따른 윗가슴둘레값과 그 빈도를 고찰하여 256명중에서 2%(5명)이

<표 3> 드레스셔츠의 목둘레, 화장에 따른 윗가슴둘레값과 그 분포

목둘레	화장				합계(명)
	70	74	78	82	
	윗가슴둘레				
31		81.3(1)			
33	87.1(3)	89.0(4)	80.4(1)		8
34	86.5(7)	91.3(6)	88.2(3)		16
35	90.8(7)	91.7(24)	92.0(13)	97.6(1)	45
36	91.4(7)	94.5(21)	95.1(11)	99.6(1)	40
37	93.2(3)	95.6(31)	96.6(19)	96.2(4)	57
38	92.0(3)	96.8(13)	97.4(17)	97.6(2)	35
39	94.5(2)	98.4(12)	97.0(12)	103.7(3)	29
40	97.5(2)	98.2(5)	102.4(9)	104.1(1)	17
41		95.7(1)	100.5(3)		4
42		103.5(1)	105.4(2)		3
44		106.7(1)			1
합계(명)	34	121	91	12	256

음영표시: 2%이상의 빈도

상의 빈도를 보이는 사이즈 스펙을 음영으로 표시를 하였다. 화장 70cm에서는 목둘레 34cm에 7명, 35cm에 7명, 36cm에 7명이 분포되어 있고, 스펙 34-70, 35-70, 36-70의 3개의 스펙에 21명이 분포되어 있고 이의 윗가슴둘레는 86.50cm에서 91.4cm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화장 74cm에서는 목둘레 37cm에서 31명으로 최빈치를 나타내고 있고 35cm에 24명, 36cm에 21명이 분포되어 있다. 34cm에서 39cm사이의 스펙인 34-74, 35-74, 36-74, 37-74, 38-74, 39-74의 6개의 스펙에 2%이상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스펙의 윗가슴둘레값은 91.3cm에서 98.4cm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56명 중 107명으로 41.80%의 비교적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화장 78cm에서는 35-78에 13명, 36-78에 11명, 37-78에 19명, 38-78에 17명, 39-78에 12명, 40-78에 9명으로 합계 81명으로 6개의 스펙에 2%이상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이 6개의 스펙의 윗가슴둘레값은 92.0cm에서 102.4cm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하면 목둘레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35cm에서 45명, 36cm에 40명, 37cm에 57명으로 가장 많고, 38cm에 35명, 39cm에 29명, 40cm에 17명으로 합 223명으로 전체의 87.12%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화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74cm에서 121명, 78cm에서 91명, 70cm에서 34명으로 합 246명으로 96.09%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2) 신사복 상의에 대한 고찰

특히 신사복 상의는 착용자의 체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옷의 맞춤새가 요구 되는 옷이다. 외국의 경우의 드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체형을 나타내고 있다. 드롭은 남성에 있어서는 윗가슴둘레와 허리둘레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본 자료에서 이 드롭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체형을 명명하였다. 가능형, 표준형, 비만형의 3가지 체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Y형, A형, H형으로 하였고 드롭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Y형은 드롭 18, A형은 드롭 15, H형은 드롭 9로 설정하였다. 가능형에는 Y형 및 YB형으로 세분하여, YB형은 드롭21로 설정하였고, 표준형에는 A형 및 AC형으로 나누고 AC형은 드롭 12로 하였다. 비만형에는 H형, HD형과 HE형으로

〈표 4〉 드림에 따른 체형 및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체형의 호칭		드림	빈도(명)	백분율 (%)	누적백분율 (%)
가능형	YB형	21	3	1.17	1.17
	Y형	18	15	5.86	7.03
표준형	A형	15	36	14.06	21.09
	AC형	12	60	23.44	44.53
비만형	H형	9	73	28.52	73.05
	HD형	6	46	17.97	91.05
	HE형	3	23	8.98	100.00
합 계			256	100.00	100.00

세분하고 HD형은 드림 6, HE형은 드림 3으로 하였다. 앞의 영문자가 Y로 되어 있는 체형은 가능형이고 A자로 되어 있는 것은 표준형, H자로 시작되는 체형은 비만형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명명하였다. 이 연령집단의 드림에 따른 체형, 빈도와 백분율 및 누적 백분율을 고찰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연령 집단에서는 드림이 21이상이고 3 이하인 7명을 제외한 256명에 대한 것이다.

이 연령집단에서의 드림의 분포를 <표 4>에서 살펴보면 드림9인 비만형 H형이 73명으로 256명중 28.5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드림12인 표준형인 AC형이 60명으로 23.44%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드림 15인 A형은 36명, AC형은 60명으로 합하여 96명으로 37.50%를 차지하고 있다. 비만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드림9인 H형이 73명으로 28.52%이고 HD형인 드림6이 46명이고, 드림 3인 HE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23명으로 전체 142명으로 55.4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능형에 대해서는 드림 18인 Y형이 15명으로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드림이 21인 YB형은 3명으로 1.17%로 이 가는 체형은 합하여 18명으로 7.03%를 차지하고 있다. 36세에서 43세사이의 이 연령은 표준형이 37.50%, 비만형이 55.47%,

〈표 5〉 신장의 빈도, 백분율 및 누적백분율

신장cm	빈도(명)	백분율 (%)	누적백분율 (%)
150	1	0.39	0.39
155	17	6.64	7.03
160	74	28.91	35.94
165	90	35.16	71.10
170	59	23.05	94.15
175	11	4.30	98.45
180	4	1.56	100.00
합계	256	100.00	100.00

〈표 6-1〉 윗가슴둘레, 허리둘레 및 신장에 따른 체형별 분포

단위:cm

윗가슴 둘레	신 장														합계(명)
	155							160							
	허 리							둘 레							
78														69(1)	1
81				68(1)										69(1) 72(1)	3
84			70(2)		75(1)	80(1)				67(1)				74(1)	6
87			69(1)		75(1)		81(2)						73(3)	77(1) 78(3)	11
90				80(1)	82(3)		86(2)		73(1)	76(1)	78(6)	81(6)	86(1)	88(2)	23
93							87(1)		73(1)		78(2)	81(5)	85(4)	87(4) 90(1)	18
96					87(1)				77(1)	83(1)	85(3)	87(3)	90(3) 91(1)	13	
99											84(1)	88(2)	91(4)	94(2)	9
102									83(2)	85(1)			95(1)	99(1)	5
105											88(1)			103(1)	2
드림	21	18	15	12	9	6	3	21	18	15	12	9	6	3	
체형	YB형	Y형	A형	AC형	H형	HD형	HE형	YB형	Y형	A형	AC형	H형	HD형	HE형	
합계(명)		1	2	3	5	4	2	1	5	10	19	22	11	6	91

()속의 숫자는 빈도, 음영표시 : 2%이상의 빈도

〈표 6-2〉 윗가슴둘레, 허리둘레 및 신장에 따른 체형별 분포

단위:cm

윗가슴 둘레	신 장														합계(명)
	165							170							
	허 리							둘 레							
78															
81			64(1)										71(1)		2
84					75(1)				68(2)						3
87			72(2)	76(1)	78(2)	80(2)				71(1)					8
90			76(2)	77(4)	81(7)	85(2)	87(3)	71(1)	73(2)	75(1)	76(1)	80(2)	82(1)		26
93		76(1)	79(1)	81(5)	84(10)	86(5)	90(2)	73(1)		80(1)	83(6)	84(7)	88(5)	91(1)	45
96			81(5)	85(6)	87(5)	90(5)	93(2)		78(2)	81(4)	85(4)	87(2)		94(1)	36
99			84(2)	86(2)	92(1)	92(4)	97(2)			83(2)	88(1)	91(1)	92(4)	96(2)	21
102				90(1)	92(1)								93(3)		5
105		85(1)		92(1)	95(1)										3
드롭	21	18	15	12	9	6	3	21	18	15	12	9	6	3	
체형	YB형	Y형	A형	AC형	H형	HD형	HE형	YB형	Y형	A형	AC형	H형	HD형	HE형	
합계(명)	—	2	13	20	28	18	9	2	6	9	13	15	10	4	149

()속의 숫자는 빈도, 음영표시 : 2%이상의 빈도

가는형이 7.03%로 분포되어 있어 이 연령에서는 비만형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 연령집단의 신장에 따른 분포상황을 고찰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신장별로 살펴보면 165cm에 90명, 160cm에 74명, 그 다음이 170cm에 59명, 155cm에 17명이 분포되어 있고 각각 35.16%, 28.91%, 23.05%, 6.64%로서 신장이 155cm에서 170cm에 전체 93.76%가 분포되어 있다. 다음은 신사복 상의의 기본치수인 윗가슴둘레, 허리둘레, 신장의 3항목과 드롭에 대한 이 연령집단에서의 분포를 고찰하였다. <표 6-1>과 <표 6-2>는 드롭과 윗가슴둘레와 허리둘레와 신장별 4항목에 대하여 신장 155cm, 160cm, 165cm, 170cm의 4간격의 240명에 대한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240명에 대하여 2%이상(5명)의 빈도를 나타내는 셀에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신장 155cm를 가진 17명 중에서 같은 신장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드롭치는 21cm에서 3cm의 7개의 급간에 분포되어 있어서 체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Y형이 1명, A형이 2명, AC형이 3명으로 표준형은 17명중에 5명으로 29.41%이고, 비만형의 H형이 5명이고 HD형이 4명이고 HE형이 2명으로 키가 작고 비만한 형이 17명중에 11명으로 64.71%를 나타내고 있다. 2% 이상을

보이고 있는 사이즈 스펙은 없다. 신장 160cm에서 살펴보면 가는형인 YB와 Y형은 6명이고 표준형인 A형과 AC형은 29명이 분포되어 있으며 비만형인 H형에는 22명, HD형에는 11명, HE형에는 6명으로 합하여 39명으로 74명중 52.70%가 분포되어 있다. 2%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사이즈스펙에는 90-78-160, 93-81-160, 90-81-160의 3개의 스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기방법에는 윗가슴둘레-허리둘레-신장의 순으로 신체치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체형의 개념을 도입하여 90-AC-160, 93-AC-160, 90-H-160등으로 표기하면 체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장 165cm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는형인 Y형이 2명이고 표준형인 A형이 13명이고 AC형이 20명으로 합하여 33명으로 36.67%이고 비만형인 H형은 28명, HD형은 18명, HE형은 9명으로 비만형이 합하여 55명으로 61.11%로 비만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을 보이는 사이즈 스펙으로는 96-A-165, 93-AC-165, 96-AC-165, 90-H-165, 93-H-165, 96-H-165, 93-HD-165, 96-HD-165의 8개의 사이즈 스펙이 있다. 신장 170cm를 살펴보면 가는형인 YB형이 2명이 있으며 Y형이 6명으로 키가 크고 가

는 형이 8명으로 59명중 10.17%를 보이고 있다. 표준형은 A형이 9명, AC형이 13명으로 22명으로 59명중 37.29%를 차지하고 있다. 비만형은 H형에 15명, HD형에 10명, HE형에 4명으로 29명이 분포되어 있어서 42.03%가 키가 크고 비만한 형이라고 할수 있다. 2%이상을 보이는 사이즈 스펙으로는 93-AC-170, 93-H-170, 93-HD-170의 3개의 스펙이다.

종합하면 155cm, 160cm, 165cm, 170cm의 4개의 신장에서 표준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155cm에서는 5명이고 160cm에서는 29명, 165cm에서는 33명, 170cm에서는 22명이 분포되어 있다. 비만형은 155cm에서는 11명, 160cm에서는 39명, 165cm에서는 55명, 170cm에서는 29명으로 이 연령집단에서는 연

령에 의한 체형의 변화가 7개의 급간에 고르게 퍼져 있으나, 같은 신장이라고 할지라도 비만형이 표준형보다 많은 연령임을 알수 있다.

다음은 신장을 제외한 윗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2항목에 대하여 피측정자의 수를 10,000으로 확대하여 밀도함수를 구하여 분포의 경향을 추정하였다. 이 연령에서의 신장의 변화는 거의 없고 등체부의 허리와 배부위의 둘레항목이 증대되어 체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이므로 신장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본자료에서 윗가슴둘레의 범위와 허리둘레의 범위를 고찰하여 윗가슴둘레는 81cm에서 111cm까지로 3cm 간격으로 11개로 범주화 하였고, 허리둘레는 61cm에서 100cm로 3cm 간격으로 14개로 범주화하였다.

9899명에 대한 분포현황을 <표 7>에 제시하였다. 2%이상을 보이는 사이즈스펙에는 음영으로 표시를 하였다. 윗가슴둘레 96cm와 허리둘레 82cm에 623명이 분포되어 있어서 6%이상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윗가슴둘레 96cm와 허리둘레 85cm에 552명이 분포되어 있고 또한 윗가슴둘레 99cm와 허리둘레 85cm에도 539명으로 5%이상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즉 5%이상을 보이는 사이즈 스펙은 96-82, 96-85, 99-85이다. 이 연령집단에서 윗가슴둘레 96cm가 2392명으로 23.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99cm로 2092명으로 20.92%를 나타내고 있다. 허리둘

<표 7> 신장에 따른 체형의 분포

신장	체형	155cm	160cm	165cm	170cm	합계(명)
		가능형	YB형	—	1	—
	Y형	1	5	2	6	14
표준형	A형	2	10	13	9	34
	AC형	3	19	20	13	55
비만형	H형	5	22	28	15	70
	HD형	4	11	18	10	43
	HE형	2	6	9	4	21
합계(명)		17	74	90	59	240

<표 8> 신장을 제외한 윗가슴둘레, 허리둘레에 따른 10,000명에 대한 도수추정

윗가슴 둘레	허리둘레														합계(명)
	61	64	67	70	73	76	79	82	85	88	91	94	97	100	
78															
81	2	4	5	3	1										15
84	5	13	24	28	20	10	3								103
87	3	16	47	88	106	82	41	13	2						398
90	1	8	38	114	220	276	224	118	40	8	1				1048
93		1	12	60	188	381	599	423	232	82	18	2			1898
96			1	13	66	216	456	623	552	316	117	28	4		2392
99				1	9	50	171	377	539	499	298	115	29	4	2092
102						4	26	94	216	323	312	195	79	20	1269
105							1	9	35	86	134	135	88	37	525
108									2	9	23	38	40	27	139
111											1	4	7	8	20
합계(명)	11	42	127	307	610	1019	1421	1657	1618	1323	904	517	247	96	9899

례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허리둘레 82cm에 1657명으로 16.57%, 허리둘레 85cm에 1618명으로 16.82%를 차지하고 있다.

3%이상에서 4.99%까지의 사이즈스펙으로는 93-76, 93-79, 93-82, 96-79, 96-88, 99-82, 99-88, 102-88, 102-91의 9개이고, 2%에서 2.99%사이의 사이즈 스펙으로는 90-73, 90-76, 90-79, 93-85, 96-76, 99-91, 102-85의 7개의 사이즈스펙이다.

이상과 같이 19개의 사이즈 스펙에 2% 이상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써 69.82%를 커버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남성복의 정장의 하나인 드레스 셔츠와 신사복의 상의 제작을 위한 사이즈 스펙을 분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36세에서 43세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드레스 셔츠의 목둘레와 화장에 따른 윗가슴둘레의 치수와 빈도를 고찰하였고 신사복 상의는 3개의 기본부위에 따른 256명의 분포 및 그 출현율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드롭치에 의하여 분류된 체형에 호칭을 붙였다, 또한 피측정자의 수를 10,000명으로 확대하여 윗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2항목에 대하여 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드레스 셔츠는 종합하면 목둘레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35cm, 36cm, 37cm, 38cm, 39cm에 합하여 206명으로 전체의 80.47%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74cm에서 121명, 78cm에서 91명, 70cm에서 34명으로 합 246명으로 96.09%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드롭치에 따른 체형의 분포를 보면 비만형인 H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AC형, HD형 순으로 전체 256명에 대하여 179명으로 69.93%가 분포되어 있다. 이 연령집단에서가는 형은 7.03%, 표준형은 37.50%, 비만형은 55.47%를 차지하고 있다. 신장이 같다고 할지라도 체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신사복 자켓의 드롭, 윗가슴둘레, 신장에 따른 허리둘레치수를 추출하고 그 빈도의 분석에서 2% 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사이즈 스펙이 신장 155cm에

는 없고 신장 160cm에서는 3개, 165cm에서는 8개, 170cm에서는 3개의 사이즈 스펙으로 합하여 14개의 사이즈 스펙이고, 분포가 넓게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10,000명에 대한 윗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두 항목의 도수추정에서, 2%이상의 출현율을 나타내는 사이즈 스펙은 19개이며 6982명으로 69.82%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연령집단에 대하여 드레스 셔츠와 신사복 상의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

이외에도 남성복의 복종에 따른 사이즈 스펙에 대한 연구가 후속연구로서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때, 사이즈 스펙의 분포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 결과들이 생산과 연결될때에 재고 누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빈도가 작은 사이즈 스펙은 작은 체형이나 큰 체형으로 따로 분류되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질 때 다양한 체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옷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金久子¹⁾, 남성복의 치수규격을 위한 체형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金久子, 李順媛, 의복의 치수규격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제3집, 187-205, 1997, 2월.
- 金久子, 李順媛, 기성복 제작을 위한 성인 남성의 사이즈 스펙의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1(7), 1247-1257, 1997
- 金久子, 신사복 상의 제작을 위한 사이즈 스펙의 분류-28세에서 35세 우리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1998, 11월.
- 張信堯(1982-1), 韓國人的 Somatotype에 關한 研究 第 1篇, 전라남도 男子의 Somato-type, 대한해부학회지, 15(1), 9-18.
- 채서일·김범중(1990),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法文社.
- 정충영·최이규,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제3판, 무역경영사, 1997.
- ISO 4415, Size designation of Clothes—Men's and boy's underwear, nightwear and shirts, NO. ISO4415-1 981(E), 1981

Salusso-Deonier. C. J., A Method for Classifying adult female body form variation in relation to the U.S. Standard for apparel siz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02), Soc. B. PO 465.(Univ. Microfilms, NO. DA8314150), 1983.

Noriaki Tsunawake, Yasuaki Tahara, Koichi Yukawa, Tetsuo Katsuura, Hajime. Harada, Koichi Iwanaga, Yasuyuki Kikuchi, Changes in Body Shape of Young Individuals from the Aspect of Adult Physique Model by Factor Analysis,

Applied Human Science, Journal of Physiological Anthropology, 14(5), 227-234, September, 1995.

川上梅, 長谷部ヤエ, 多変量解析法による成人男子の體型に関する研究(第1報), 家政學雜誌, 31(7), 1980

川上梅, 多變量解析法による成人男子の體型に関する研究(第3報)一重回歸分析, クラスター分析による形態の年齢的變化, 家政學雜誌, 33(5), 254-259. 1982.

解説 既製衣料品 サイズのすべて, JIS衣料サイズ 推進協議會編.

柳澤澄子, 被服體型學, 光生館.